

한국오리협회 경기도지회 안성지부 오리데이 맞아 소비촉진 행사

안성시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레시피 북-오리인형 배부...오리고기 홍보



한국오리협회(이하 협회) 경기도지회 안성지부가 오리데이를 맞아 안성시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협회 경기도지회 안성회원 10여 명은 지난 4월 28일 안성시내 오리고기 식당에서 오리데이 기념 소비촉진 레시피 북과 오리인형을 배부하며 오리고기를 홍보했다.



행사에서 김광배 경기도지회장은 “경기도의 오리농가들은 연이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비자에게 맛 좋고 품질 좋은 오리고기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성시, 기술센터 직원분들 모두 오리농가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오리데이를 맞아 오리고기를 먹고 모두 힘내서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회원 중 가장 만형인 이상태 사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오리를 키우는 농가와 오리 계열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오리데이와 어린이날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으러 온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오리인형을 배부, 큰 호응을 받았다.

